

때 이른 무더위 기승 '온열질환 주의보'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에 지쳐 쓰러지는 온열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면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해마다 1,000여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숫자는 2015년 1,056명,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2016년에는 2,125명까지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574명이 발생했

수은주 30도 이상 치솟을 땐 매년 사망자 속출 한낮 무리한 야외활동 자제 적절한 휴식 필요

다.

더위가 일찍 찾아온 올해도 지난날 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적으로 7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광주와 전남에서도 각각 6명과 9명이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지난 6일 오후 2시께 완도 한 선거유세현장에서 A씨(44)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

원으로 이송됐다. 유세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유세 차량 위에 올라 선거 유세를 지원하던 중으로 쓰러졌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인 온열질환 사망자는 2015년 11명, 2016년 17명, 지난해에는 11명에 달하는 등 매년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에서도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1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일사병과 열사병, 열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올해는 6월 초부터 때 이른 더위가 찾아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수칙을 꼭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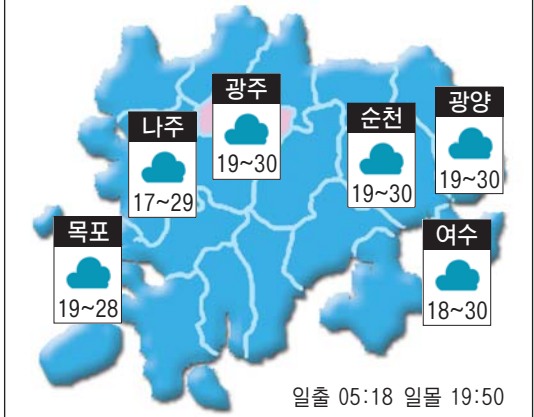
일선 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물과 이온음료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카페인 음료는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며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되도록이면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의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65세 이상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중 비중이 높다"며 "논과 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질 경우 자칫 목숨까지도 위협될 수 있는 만큼 야외에서 일을 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7~29	흑산도	17~25
담양	17~29	구례	17~29
화순	17~29	곡성	16~29
영광	18~28	완도	18~30
함평	18~29	강진	17~30
무안	18~27	장흥	17~30
영암	17~29	해남	17~29
진도	17~27	고흥	17~30
신안	19~27	보성	16~28

목포	만조 08:17 20:50	여수	만조 03:02 16:03
	간조 00:47 13:38		간조 09:27 21:53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50대 여성 숨진지 7개월 만에 발견

광주한 원룸에서 홀로 사는 50대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4시 27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원룸건물 감 모씨(55) 거주지에서 약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소방관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심하게 부패한 강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사용한 적 없는 휴대전화, 올해 3월부터 약취가 난다는 이웃 진술,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강씨가 약 7개월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룸 창문이 열려있어서 겨울철에는 부패가 서서히 진행됐고, 원룸 관리인이 먼 곳에 살아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원룸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고, 강씨는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찬 기자

112 허위신고 40대 징역 8개월

법원이 112로 허위신고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모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류 판사는 "누번 기간에 범행했고, 공무원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5개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같은 해 7월 술집에 119를 이용해 귀가하려 했으나 출동하지 않자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했다.

/고광민 기자



북구보건소, 구강 캠페인 20일 광주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열린 치아사랑 구강보건 캠페인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구강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나에게 일 생기면 신고해달라"

강진 여고생 실종 전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이 실종 전 친구에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실종된 A양(16·고1)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아빠 친구' B씨(51)를 만나러 나갔다가 행방불명됐으며 B씨는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양은 실종 전날인 지난 15일

오후 3시 34분께 친구에게 '내일 아르바이트 간다. SNS 잘 바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던 A양은 평소 가족끼리 잘 알고 지내던 B씨를 따라가기에 앞서 '아저씨가 알바 소개한 것을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신고해달라'고도 했다.

경찰은 실종 일주일 전 A양이 "학교 앞에서 아빠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기로 했다"는 진

술을 친구를 통해 확보했다. A양은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아버지와 B씨와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다.

A양은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다가 이날 오후 4시 30분께부터 도암면 야산에서 신호가 잡힌 것을 끝으로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경찰은 B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했다가 이날 오후 5시 35분께 강진읍의 집으로 돌아왔고 인근 CCTV에 의류로 추정되는 물건을 불태우고 세차를 하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야산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공지영 작가 고소한 이유

"이민주 목사와 친하다고 공격 참을 수 없어"

광주전남 지역의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곽애남 할머니(93)가 2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지영 작가(55)에 대한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곽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조 조카 이관로씨(62)와 함께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곽 할머니와 조카 이씨가 공지영 작가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사연은 이민주 목사와 인연을 맺은 지 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2일 전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찾아가 이민주 목사를 만났다. 곽 할머니의 한 맺힌 생을 언론으로 접한 이 목사가 새로운 보급자리 건축 지원을 약속하면서 만남이 이뤄졌다.

곽 할머니는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44년 봄 만 열여덟살 나이로 일본군 성노예인 위안부로 끌려갔다. 해방이후 중국에서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4년 귀국했고 2015년 12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곽 할머니를 모셔오면서 수도시설을 갖춘 침상이 필요했던 이씨는 비닐하우스로 찬바람을 막은 컨테이너 가건물에 곽 할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었다. 이목사는 딱한 사정을 알고 곽 할머니가 지낼 새집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켰다.

그러부터 약 1년 뒤 이 목사를 둘러싼 봉침 논란이 불거졌다.

곽 할머니와 조카 이씨는 이 목사를 향한 공작가의 비판 화살이 느닷없이 자신들을 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작가가 페이스북에 '이씨가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 '광주전남 시민에게 성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 할머니와 조카 이씨는 방송사 탐사보도 프로그램에까지 이러한 주장이 잇따르자 일면식도 없는 공작가를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찬 기자

<바로잡습니다>

6월 20일자 1면 '광주 고검장 박근택·지검장 배성범' 기사 내용 중, 양부남 의정부지청장을, 의정부지검장으로 바로잡습니다.

NAVER **드림꽃도매** 검색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party-food.co.kr

"음식출장 행사 25년 전통" 파티외식산업

질순전지, 팔순전지, 아외결혼식, 성당교회 결혼식 전문업체 / 시내, 시외 출장 뷔페 전문

음식물 고객 배상 화재보험 10억원 가입업체

단체도시락 제조 납품, 단체식사 병원 / 기업체 / 학교 구내식당 - 외곽운영, 외곽급식

※ 식탁, 의자, 퇴갑·질순 상차림, 케익, 프랑카드 서비스함 ※ 행사장비 지원 (렌드 사진, 비디오, 객실이 출장 가능함)

전문 파티 플래너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무료상담전화 080-226-0085 / 010-4601-3222

※ 소량이라도 약속한 시간전까지 배달납품 합니다.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9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